

베트남 북부와 남부의 사회자본 비교

- 베트남의 이탈리아 해석에 대한 도전*

왕혜숙**·백용훈***·류석춘****

I. 머리말

베트남의 통일은 2차 세계 대전의 종전과 함께 자연스레 찾아오지 않았다. 20년에 걸친 프랑스와의 독립전쟁(1946-54)과 미국과의 전쟁(1963-75)의 결과, 1975년 비로소 베트남은 통일을 이루게 된다. 치열했던 반외세 투쟁의 경험으로 인해, 통일 이후 베트남 사회주의는 자연스레 강한 민족주의 색채를 띠게 되었으며, 그 결과 베트남은 폐쇄적 대외경제정책이라는 극단적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은 당연한 수순이었으며, 여기에 미국의 엠바고, 중국과의 국경분쟁(1979), 캄보디아 점령(1979-89), 소련 경제의 점진적 후퇴까지 맞물리면서 베트남의 폐쇄적 계획경제는 심각한 거시경제적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Turner and Nguyen 2005).

이에 베트남은 1986년 경제 부흥을 위한 도이 머이(đổi mới) 정책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이른바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는 동시에 시장을 도입하는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변화와 경제 도약을 꾀한

* 본 연구는 2009년도 포스코청암재단의 ‘아시아인문사회학술연구지원’으로 수행되었다.

**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수료. 교신저자.

***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

****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및 지역협동과정 교수.

것이다. 그 결과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약 20년의 기간 동안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를 전후로 한 일시적 침체기를 제외하고, 베트남은 매년 7-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동남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괄목할 만한 발전을 지속해 왔다(이성량 2007).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이 베트남 내부에서 동일한 양상으로 전개된 것은 아니었다. 특히 베트남의 북부와 남부는 여러 가지 맥락에서 서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의 행정수도는 북부의 하노이(Hà Nội)이다. 그러나 사실상 경제 수도라 불리며 베트남 경제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남부의 호치민시(Thành phố Hồ Chí Minh)이다.¹⁾ 즉 수도가 북부의 하노이임에도 불구하고, 호치민시를 중심으로 한 남부 지역의 경제성장이 국가 전체의 발전을 주도할 정도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베트남 북부와 남부의 차이가 비단 경제적인 측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다. 베트남 내부에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형적, 문화적 그리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상당한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다(유인선 1999; 하순 2000; 최병욱 2000; 한도현 2000). 베트남은 지형적으로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데다가, 역사적으로 남북 분단의 경험이 있으며, 문화적으로 남부보다 북부 지역이 유교 문화의 영향

1) 2007년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하노이의 GDP per capital income은 약 3,200만 동인 반면, 베트남 전체의 평균은 1,340만 동으로 나타났다(하노이 정부 공식 홈페이지, http://www.english.hanoi.gov.vn/web/guest/home?p_p_id=vcmsviewcontent_INSTANCE_OdbM&p_p_lifecycle=0&p_p_col_id=column-2&p_p_col_count=1&vcmsviewcontent_INSTANCE_OdbM_struts_action=%2Fvcmsviewcontent%2Fview&vcmsviewcontent_INSTANCE_OdbM_articleId=11822&vcmsviewcontent_INSTANCE_OdbM_categoryId=2005&vcmsviewcontent_INSTANCE_OdbM_cat_parent=2005&vcmsviewcontent_INSTANCE_OdbM_styleBorder=0, 2011년 10월 1일 검색). 같은 해는 아니지만 2004년 자료에 따르면 호치민시의 GDP는 베트남 전체 GDP인 362조의 1/3을 웃도는 131.5조동으로 나타났다(호치민시 정부 공식 홈페이지, www.eng.hochiminhcity.gov.vn/eng/news/default.aspx?cat_id=567&news_id=2158#content, 2011년 10월 1일 검색). 두 도시 모두 베트남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경제발전 정도를 보여준다는 차이가 없지만, 남부 호치민시의 경제발전이 북부 하노이에 비해 더욱 압도적임은 부인할 수 없다.

을 강하게 받았다(유인선 1989; 하순 1994: 5). 이러한 지형적, 역사적, 문화적 차이와 더불어, 두 지역은 식민화, 근대화 그리고 공산화의 과정에서도 이질적인 경험을 하였다(박종철 1996; 김종욱 2003; 이한우 2007).

이렇듯 남북부를 구분 짓는 다양한 차이 가운데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남북부의 서로 다른 “사회자본”의 양상이다. 사회자본은 최근 국가, 지역, 또는 개인의 경제발전과 경제성과를 설명하는 변수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념이다(Schiff 1999). 특히 사회자본 개념이 제3세계의 발전 연구에서 주목을 받게 된 최근 상황은,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경제발전에 대한 문헌들이 주로 국가의 경제 정책과 정부의 공식적 역할에만 치중한 나머지(Leys 1996), 제도의 이면에 존재하는 비공식적인 영역의 역할과 기능을 상대적으로 간과하며 노정한 한계를 배경으로 한다(류석춘·왕혜숙 2008). 더군다나 동일한 정책이나 발전 프로그램이 한 국가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때 나타나게 되는 지역적인 편차들은 이러한 한계를 더욱 확인시켜 주었다. 바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비공식적이고 비제도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존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회자본 개념이 적극적으로 발전 연구에 도입되게 된 배경이다(퍼트남 2002[1993]: 132-133).

이렇게 사회자본 개념이 사회과학 연구에서 만병통치약처럼 각광받게 되자, 많은 연구들은 앞다투어 지역연구에 사회자본 개념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역연구의 동시대적 고전이 된 퍼트남의 이탈리아 연구(Putnam 1993a)는 학습과 모방의 대상이 되어,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지역연구에서 복제품을 만들어냈다(Woolcock, 1998). 이들 연구들은 모두 “경제적 저발전의 지역은 나쁜 사회자본을, 경제적 발전을 보이는 지역은 좋은 사회자본을” 가진 지역이라고 한 목소리로 외쳐댔다(Warren, 2008). 이러한 연구 경향에 따르면, 서로

다른 경제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베트남 남북부 역시 서로 다른 형태의 사회자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당연히 전제된다. 즉, 경제발전을 보이고 있는 베트남 남부는 좋은 사회자본을, 그렇지 못한 베트남 북부는 나쁜 사회자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 가정을 검증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하여, 베트남의 사회자본 이론이 베트남 남북부의 사회자본의 서로 다른 양상을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 적합성을 가지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먼저 베트남 남북부의 사회자본의 차별적인 양상을 규명하기 위해 북부 수도 하노이와 남부 호치민시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북부와 남부의 독특한 사회관계의 특성을 추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퍼트남(Putnam 1993a) 및 이와 유사한 연구성과들이 제시하는 사회자본 유형론과 비교함으로써(Warren 2008), 지금까지 사회자본과 경제발전에 대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던 몇 가지 가정들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는 일견 서구의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이론의 보편성을 동남아시아의 경험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비서구 사회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서구의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이론이 갖는 한계를 수정 및 보완함으로써 보다 높은 설명력과 현실적 정합성을 가진 이론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II.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본 베트남 북부와 남부

1. 사회자본과 경제발전: “좋은 사회자본” 대 “나쁜 사회자본”

사회자본 개념이 사회과학 연구에 도입된 계기는 개인의 경제적 성공이나 성취를 설명하려는 다분히 미시적인 의도에서였다 (Granovetter 1973; Coleman 1988; Burt 1992; Portes 1995). 이러한 연구들에서 정의되는 사회자본이란, 특정 집단에 속하게 됨으로써 또는 특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다른 형태의 자본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주고, 그 결과 그것이 없었더라면 이룩하기 어려운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간관계의 “연결망”을 의미한다. 즉 사회자본 개념의 시작은 상당히 미시적인 관심에 대한 사회관계적 접근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사회자본 개념은 개인을 넘어서는 공동체, 지역, 민족, 국가를 단위로 하여 경제발전과 민주화와 같은 거시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연구들에 적극 활용되기 시작한다. 경제정책과 제도의 공식적 역할에만 주목했던 기존 연구들이 보여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동일한 정책과 발전 프로그램이 국가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른 결과를 가져오자 비로소 발전을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현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 결과 사회자본 개념은 더욱 정교화 되면서, 미시적 개인의 차원이 아닌 공동체적 또는 집합체적 차원의 개념들, 예를 들어 “신뢰”나 “규범”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전한다(Putnam 1993a: 167; 후쿠야마 1996: 50-51; 류석춘·왕혜숙 2008).²⁾

사회자본 개념을 한 국가 내부에서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발전의

2) 현재까지 합의된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는 크게 “연결망” “신뢰” “규범” 세 가지로 종합될 수 있다(류석춘·장미혜 2002; 최종렬 2004).

차이와 연결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한 선행 연구로는 퍼트남(Putnam 1993a)의 이탈리아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이탈리아의 남부 부가 보여주는 현저한 민주주의 발전의 차이를 두 지역에 존재하는 사회자본의 서로 다른 양상을 통해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이탈리아 북부는 개방되고 확장적인 연결망을 기초로 1차 집단을 넘어선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하는 시민적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결사체의 활성화의 기반에는 모르는 타인과의 믿고 협동할 수 있는 “일반적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높은 일반적 신뢰와 참여적 시민문화는 국가 기구나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제도적 민주주의 발전의 기반이 된다.

반면 남부에서는 가족 및 친족과 같은 제한된 상대를 중심으로 강하고 폐쇄적인 연결망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범위를 넘어서는 자발적 결사체들은 활성화되기 어려운데, 강한 내집단 신뢰가 타 집단은 물론 모르는 타인에 대한 신뢰의 발달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자본의 차이는 직접적으로 두 지역이 보여주는 제도적 민주주의의 공고화 수준과 연결된다. 즉 퍼트남의 결론은, 확장적이고 개방적인 연결망이 풍부할수록 타인에 대한 일반적 신뢰가 발달해 있으며, 이런 경우 민주적 정치제도는 물론 경제적 번영에도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Putnam 1993b).

퍼트남의 연구는 동일한 국가 내에서 보여지는 지역적 차이를 국가정책이나 시장제도와 같은 정치경제적 변수가 아닌, 사회자본이라는 역사문화적 변수를 활용하여 설명하는데 일정한 함의를 제공한다. 왜냐면 국가와 시장제도는 대부분 국민국가를 그 기본단위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적 다양성을 설명하는데 본래적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의 장점으로 인해 퍼트남의 연구는 사회자본과 정치발전 사이의 관계는 물론 지역적, 집합적 수준의 경제발전에도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Evans 1996;

Ostrom 1996; Woolcock 1998; Dalton 2002; Wetterberg 2007).

이들 다양한 논의들은 결국 미시적, 거시적 수준을 불문하고 정치 발전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회자본과 그렇지 못한 사회자본을 “형태론적으로” 구분해 내는 일련의 시도들로 귀결된다(Warren 2008). 이들에 따르면 집중적 비판의 대상이 되는 “나쁜” 사회자본은, 구성원들을 수직적으로 결속시키는(bonding) 강한 연대로 구성된 사회자본이다. 친족 등의 범위에 한정된 좁고 폐쇄된 형태의 네트워크에 함몰된 사회는 “일반적 신뢰”가 낮은 저신뢰 사회로 구분되는데(후쿠야마 1996), 이러한 사회에서는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적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퍼트남 2002[1993]: 294). 왜냐하면 폐쇄적 신뢰가 내부적으로는 강한 충성을 형성하는 반면, 외부적으로는 강한 반감과 갈등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퍼트남 2002[1993]: 23). 이러한 상황에서는 집단간 갈등 역시 국가 제도나 공적 규칙에 의지하기보다는 내집단 결속을 통한 사적 해결 방식에 의지한다. 자연히 제도에 대한 신뢰 역시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내집단의 배타적인 이익 추구는 종종 다른 집단의 이해에 반하는 동시에 사회 일반의 공공선을 희생시키기도 한다.

반면 “좋은” 사회자본은 외부 지향적이고 다양한 사회집단을 넘나드는 교량적 연대(bridging networks)의 형태를 띤다. 이러한 약한 연대(weak ties)는 서로 다르지만 보완적일 수 있는 자원들을 가진 사람들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이점을 갖는다(Granovetter 1973). 또한 개방적 연결망은 협소한 내집단 신뢰를 넘어서 타인 일반에 대한 “일반적 신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집합행동과 협동은 극대화되며,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은 꽃필 수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자연히 인간 일반에 대한 신뢰는 물론 국가기구와 제도에 대한 신뢰 역시 높게 나타난다. 퍼트남의 표현을 빌면, 배타적 연결망을 넘어선 자발적 결사체에 대한 참여는 그 자

체가 일반적 신뢰의 증거인 동시에 일반적 신뢰를 육성한다는 점에서, 자발적 결사체는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학교인 셈이다(Putnam 1993a). 이들이 주장하는 사회자본에 대한 이분법 논의를 정리해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사회자본의 유형

	좋은 사회자본	나쁜 사회자본
연결망 형태	약한 연대 개방적(교량적) 연결망	강한 연대 폐쇄적(결속적) 연결망
신뢰의 유형	일반적 신뢰 / 제도적 신뢰	제한적 신뢰
기능	공공재 생산	부정적 외부효과 양산

최근 비서구 사회에 대한 지역연구에서도 사회자본을 중요 변수로 설정하는 연구 경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동남아 지역 연구들을 대상으로 사회자본을 중요 변수로 설정하는 연구경향이 서서히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경향은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도출된 이론을 동남아 사회에 적용해 보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연구 사례로 박은홍(2004)은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인도네시아와 타이의 민주적 지배구조를 비교 및 설명한다. 여기서 사회자본은 “공공재로서 수평적, 시민적 참여의 상호성에 기반한 사회적 연결망”을 지칭한다. 나아가 사회자본은 사유재에 해당하는 전통적 사회자본, 즉 후원-수혜 관계와 같은 위계적, 종속적 연결망과 대비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사실상 기존의 사회자본 정의를 동남아시아의 사례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또다른 연구 사례로 양종희(2004)는 싱가포르의 자본주의 발전과 사회자본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이 연구는 싱가포르의 사회자본의 에토스를 유교문화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의

이론을 적용하여 아시아적 특수성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그는 결론적으로 싱가포르의 경제발전은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유치와 정부 주도의 산업화, 그리고 관료체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더 큰 역할을 했다고 진단하며, 유교문화 특히 연고주의의 역할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즉 유교 윤리를 에토스로 하는 아시아적 사회자본은 폐쇄적인 관계를 만들어 내고 따라서 사회 전체의 차원에서 역기능을 양산하는 것은 물론, 권위주의 정권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즉 연고주의라는 아시아의 사회자본은 “나쁜” 사회자본으로 정의된다.

결국 이들 모두는 기존의 “좋은” 사회자본 대 “나쁜” 사회자본의 이분법을 준거로 동남아 사회의 경제발전, 정치발전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기존 동남아 지역연구에서 간과되거나 또는 그저 기술될 뿐이었던 제도 이면의 비공식적 차원에 관심을 기울인 첫세대 국내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구 이론의 보편적 설명력에 과도하게 기대어, 동남아 사회가 가진 특성들을 서구 이론에 끼워 맞추는 한계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 동남아 사회의 경험을 근거로 서구 중심 이론의 한계를 규명하거나 수정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베트남의 이탈리아에 대한 관찰 및 위에서 살펴본 몇 가지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이론은 베트남에도 그대로 적용되곤 한다. 특히 베트남과 이탈리아는 두 사례 모두 남북부가 보여주는 지역적 차이가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는 점에서, 사회자본과 경제발전에 대한 비교역사적 연구를 실시하기에 매우 적합한 사례로 평가된다. 앞서 정리한 “좋은” 사회자본 대 “나쁜” 사회자본의 이분법을 그대로 따른다면,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베트남 남부는 “좋은”

사회자본, 다시 말해 “약한 연대”(weak ties)를 지향하는 개방적인 네트워크와 높은 수준의 “일반적 신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가정해 볼 수 있다. 반면 경제발전이 더딘 베트남 북부는 “나쁜” 사회자본 즉 좁은 범위의 개인간의 “강한 연대”(strong ties)와 낮은 수준의 “일반적 신뢰”를 구성요소로 하는 사회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리라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은 단순히 경제발전의 유무만을 기준으로 나쁜 또는 좋은 사회자본을 추론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드러난 현상만으로 해당 사회의 내부적 특성을 추론하는 방법으로, 사후적 해석이 가지는 오류의 위험을 안고 있다. 즉 “좋은” 사회자본을 가지고 있음에도 발전을 성취하지 못한 사회나 “나쁜” 사회자본을 기반으로도 상당한 경제성장을 달성한 사례들은 현실에서 얼마든지 관찰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베트남 북부와 남부 사회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앞서 설정한 결과론적 가설들의 타당성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진정 북부는 “나쁜” 사회자본의 특성을 갖는지 그리고 남부는 “좋은” 사회자본을 가지고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좋은 사회자본과 나쁜 사회자본은 베트남의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존 연구문헌들을 통해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즉 연결망과 신뢰에 대한 가설들을 더욱 구체화 해보기로 한다.

2. 베트남 북부와 남부의 사회자본에 관한 가설

사회자본의 성격만으로 경제발전을 설명하는 것은 분명 무리한 시도이다. 발전이란 매우 복합적인 현상이며 그렇기에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변수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수반되어야 함은 당연

한 전제이다(Geertz 1973). 무엇보다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이 사회자본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사회적 힘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변수들을 열거함을 넘어서, 사회자본을 포함한 다양한 변수들이 어떻게 상호작용 하면서 그 과정 속에 경제적 발전 또는 저발전이라는 현상이 만들어 지는가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베트남에 대한 기존 연구는 베트남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설정하거나 혹은 특정 지역에만 편중된 연구가 많았다. 전자는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차원에서 존재하는 미시적 차이와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거시적 분석의 수준에 그치는 반면, 후자는 마을 혹은 지방 단위의 연구에 그치면서 일반화된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Geertz 1963). 또한 한 지역의 현상을 변화 없는 연속성 속의 “폐쇄된 체계”로 파악할 경우 베트남이 겪은 압축적인 근대화 과정은 물론 이로 인한 베트남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하순 2000). 이러한 맥락에서 북부와 남부 두 지역을 독립된 범주로 설정하여 비교분석을 시도할 경우 지역 연구가 가진 장점을 백분 활용하여 베트남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베트남을 세부 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하는 연구들은 다수 진행된 바 있다. 특히 북부와 남부의 다양한 차이들은 이미 일부 선구적 연구들에 의해 관찰되어 왔다. 그 가운데 전통적인 사회관계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베트남 남북부를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하순(1994: 2000)의 연구는, 북부의 결속력 있는 강한 연대와 남부의 개방적인 약한 연대라는 기본 가정을 역사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그에 따르면, 베트남 남북부는 서로 다른 지리적 환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사회생활의 조직화 방식을 가지게 되었다. 북부 홍하 델타 지역의 땅은 고저에 따른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배수 및 토양의 비옥도에서도 편차가 크다(하순 2000). 따라서

대규모 단위의 인구가 고지대의 비옥한 토지에 집중되면서 핵 모양으로 응집된 촌락 유형이 형성되었다. 또한 산적 등의 외부 침입자들의 습격에 대비해 울타리로 촌락을 보호하는 등 촌락 단위로 대처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게다가 척박한 환경에서의 노동 집약적인 쌀 농업 과정은 그 사회로 하여금 고유한 협동 방식과 공동체 의식을 발달시켜 나가게 만들었다(Geertz 1973: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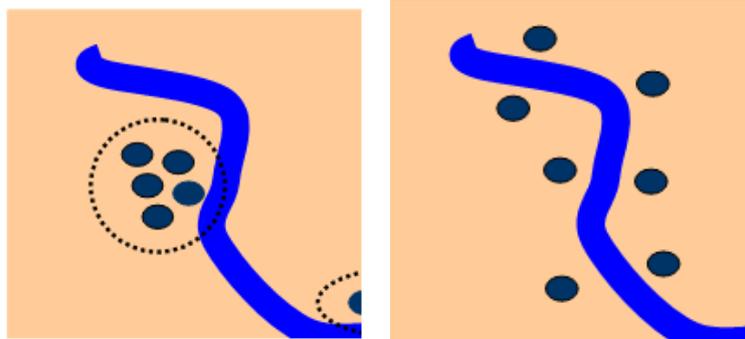
이러한 유형의 촌락사회는 자연스레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지향하게 되고, 나아가 촌락 개별 단위로 자급자족이 가능하도록 자치 기능을 발달시키게 된다. 따라서 홍하 델타의 촌락들은 친족, 이웃과의 친분관계, 종교적인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상부상조하면서 폐쇄된 촌락사회 내부에서 자율적 생존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북부에 활발하게 조직되어 있는 상부상조를 위한 경조회, 계모임, 새사육 클럽, 재향군인회, 갑장회(동갑모임), 씨름클럽, 상인조합, 동창회 등의 비공식적 친목단체들의 기원 역시 여기서 유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하순 2000: 91).

한편, 광범위한 수리관개 시설에 의존하는 북부와 달리 남부의 쌀 농업은 자연적으로 수량(水量)이 조절되는 우호적인 환경을 기반으로 발달하였다. 메콩 델타의 이러한 자연적인 환경과 조건은 상호 협력을 위한 대규모의 밀집된 촌락 유형을 불필요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다른 동남아시아 사회와 마찬가지로 농업의 상업화 이전의 풍부한 산림과 토지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지역을 옮겨 다니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해 주었다. 따라서 개별적인 핵가족 단위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하여 새로운 농토를 개척하는 방식이 생존과 적응에 보다 유리했다(하순 2000: 88).³⁾ 북부와 같은 촌락 단위의

3) 특히 태국의 상황은 동남아시아 사회의 이와 같은 일반적 이주 성향을 잘 보여준다. 태국은 국토의 80% 이상이 농경지였고 농사를 위한 제반 요소가 잘 갖추어져 있었

자발적 단체들이 남부에 상대적으로 조직화되지 못한 이유 역시 분산된 정착 유형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Hickey 1958; Dong 1991; 하순 2000). 남북부의 촌락 형태를 그림으로 비교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홍하 델타(북부)와 메콩 델타(남부)의 촌락 유형



<홍하 델타(북부)의 촌락 유형>

<메콩 델타(남부)의 촌락 유형>

출처: 백용훈 2011.

남북부의 전통사회에서 발견되는 서로 다른 사회생활의 조직화 방식은 이후의 역사적 궤적에 따라 더욱 강화되어 나간다. 북부의 경우는 특히 종교가 기존 사회관계의 특성을 강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한다. 북부는 남부에 비해 유교가 역사적으로 큰 지배력을 행사해왔다(김종욱 1998).⁴⁾ 북부에 유교의 영향이 더욱 지배적이었던 이유는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뿐만 아니라, 통치 이데올로기로

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혼 후 가족과 함께 살기보다는 부부가 개별적으로 독립해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여 거주했다. 이와 같은 거주 형태는 부계 또는 모계의 특성이 기보다는 신거제(新居制, neolocal)에 가깝다(Ringmar 2005). 같은 경향은 필리핀에서도 발견된다(류석춘 1994).

4) 베트남의 종교는 전국적으로 민간 신앙이 고른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북부는 불교와 유교가 지배적인 반면, 남부는 천주교가 대중적이며 이의 변종인 “호아하오”(Hòa Hảo, 和好)교와 “까오다이”(cao đài, 高台)교도 본거지를 두고 있다(구엔취홍 1980).

서의 유교의 기능과도 관련이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레(黎, Lê 1428~1788) 왕조는 주자학을 국가 운영의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여면서 대민 통제수단으로 향약을 발전시켰다(한도현 2004: 294, 311-2). 향약이 주로 중북부 지역, 그 가운데서도 홍하 델타 지역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⁵⁾ 반면 남부 지역에서는 이렇다 할 향약의 증거들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하순 2000: 91; 한도현 2004: 290).

유교는 지배집단의 통치 이데올로기일 뿐 일견 사회자본과는 별 상관없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배집단이 전제군주에 대한 충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강조했던 유교의 효 덕목과 조상숭배는 일차적으로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무엇보다 조상숭배라는 신념 체계는 친족 공동체 결속의 기본 토대를 제공하였다. 왜냐하면 베트남인의 조상숭배 및 의례가 종적으로는 세대간의 결속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횡적으로는 친족집단의 유대를 확대하는 기능을 했기 때문이다(최호림 2005).

향약 역시 단순히 대민 통제수단을 넘어서 지역 사회의 자치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베트남의 사회관계를 잘 나타내주는 말 가운데 하나가 “띤깜”(tình cảm, 精感)이다. 중국의 궤시(關係), 한국의 연고(緣故)처럼 베트남에서는 띤깜이라는 사회관계가 아시아적 형태의 사회자본의 증거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한도현은 향약이 강조했던 행위 규범들이 주민들은 물론 나아가 지역 사회의 띤깜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해석한다(한도현 2003: 315).⁶⁾ 이렇게 볼 때 유교는 북부 사회의 친족, 촌락 공동체의 결속적 연결망을 더욱

5) 한남연구원에 남아 있는 한문본 및 쓰눔본 향약은 북부 산악지대 41건, 북부 중간지대 64건, 홍하 델타 지역 497건, 중부지방 44건 등이다(한도현 2004).

6) 한도현은 향약을 서구와 같은 자율적인 매개집단은 아닐지라도 지역 자치조직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아시아적 형태의 중간조직으로 평하고 있다. 즉 적극적으로 퍼트남식 사회자본의 증거로 해석하고 있는 셈이다.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한 셈이다.

남부의 경우 역시 전통사회의 분산된 촌락형태와 개방된 사회관계는 이후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더욱 심화된다. 특히 남부의 민족적, 종족적 다양성은 이러한 경향을 강화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다. 북부는 역사적으로 인구의 유출입에 큰 변동이 없어 종족적 다양성이 높지 않았던 반면, 남부는 다양한 이민족들이 수세기에 걸쳐 끊임없이 이주해 들어오면서 높은 종족적 다양성이 확립된 특성을 갖는다. 그 결과 중부 이남 지역에는 참족(Chams)이나 크메르족(Khmers) 등의 원주민 문화는 물론 베트남 북부로부터 유입된 유교 문화까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유인선 1989: 2; 1999). 이러한 맥락에서 최병욱(2000)은 남부를 다민족 영역으로 규정한다. 그에 따르면 베트남 남부는 이미 17세기 이전부터 참족, 크메르족, 참파인, 말레이 계통의 므농(Mnong, 芒), 찌러(Cho Ro, 佐羅), 쓰띠엥(S'tieng, 斯丁) 등 다양한 민족들이 일정한 평화 상태를 이루며 공존해왔던 지역으로 묘사된다.

또한 2차 대전 이후 진행된 베트남 전쟁 역시 남부의 종족적 다양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물론 전쟁 이전에도 북부 공산 정권을 피해 남부로 이주한 사람은 많았다. 여기에 더해 남부 베트남 정부는 공산 게릴라의 근거지를 없애기 위해 촌락을 파괴하고 농민들을 강제로 도시로 내몰았다. 북으로부터의 탈출, 농촌으로부터의 강제 이주 등으로 사이공이나 그 주변의 도시인구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여기에다 전쟁 특수도 한 몫 하였다. 전쟁 특수인 대량소비,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이 사이공을 중심으로 팽창하면서 주변 농촌 인구의 유입을 유발하였기 때문이다(한도현 2000: 69-70). 그 결과 1945년 50만이던 사이공의 인구는 1960년대 230만으로 증가하였다.⁷⁾

7) 같은 시기 북 베트남은 미군의 폭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구의 도시

남부로 유입된 이주자들의 이동 패턴 역시 기존에 형성된 사회관계적 특성을 재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남부로 이주한 인구의 사회적 배경은 대부분 떠돌이 농민, 부랑자, 범죄자, 탈영병 및 가난한 선비계급으로 단신 혹은 개별 가족 단위로 이동하였다(유인선 1999). 이러한 이동 패턴으로 인해 이들은 매우 협소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유인선 1997). 생존과 적응을 위해 기댈 수 있는 친족의 범위는 너무 좁거나 아예 없었으며, 생존을 위해서는 가족 외부의 연결망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동원해야만 했다. 이러한 높은 이동성은 가족이나 친족관계뿐만 아니라 2차 관계에 있어 개방적 태도를 가져왔을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⁸⁾

다민족 사회로부터 기원한 남부의 약한 연대적 특성은 이후 자본주의화 과정과 맞물리며 재강화된다. 상업화/산업화 과정은 호혜성에 기반한 농민경제와는 전혀 다른 가치, 즉 개인주의적, 계산적 합리성의 도입을 의미한다(Scott 1976). 그런 점에서 자본주의화 과정은 경제적 조직화 방식뿐만 아니라 사회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많은 연구들은 남부가 북부보다 자본주의적 발전에 앞서 있었으며, 전통사회의 도덕경제의 성격을 조기에 벗고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한 시장 경제로 이행하고 있었음을 주장한다.

한 예로 최병욱(2008)은 남부가 이미 19세기에 중국과 태국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동남아 해상교역의 중심이었으며, 다양한 수공업들

화를 억제하였다. 여기에도 북 베트남의 산업화 수준이 미약하였기 때문에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을 초래할 만한 경제적 인센티브도 없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북 베트남은 도시 인구의 정체 내지 감소를 경험하였다(한도현 2000).

8) 이러한 사회조직의 특성이 반드시 개방성과 관련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동일한 특성을 가지는 태국 사회에 대해서 Ringmar(2005)는 “느슨한 사회”로서 통합성과 조직력이 높지 않은 사회로 묘사한다. 그나마 발견되는 통합성은 공동체를 단위로 하기보다는 후원자와 수혜자 사이의 개인간 연결망을 단위로 발달한다.

이 발달해 있었음을 강조한다. 당시 남부의 전통 수공업은 다른 사회와는 구별되는 경제 조직화 방식을 보여주는데, 특히 비전(秘傳)이라 불리는 핵심 기술의 전승에 있어서 남부는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였다(최병욱 2008: 230).⁹⁾ 최병욱은 이를 남부 사회 특유의 “개방성”으로 규정하는데, 이는 19세기 남부 촌락에서 외래의 유입 인구에게 “어디에서 왔는지를 결코 묻지 않는” 정서와도 일맥상통한다고 평가한다(최병욱 2008: 230-1).

이후 남부에서는 식민화와 공산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자본주의적 제도는 물론 자본주의적 멘탈리티(mentality) 역시 발달하게 된다. 여기서 자본주의적 멘탈리티란 다른 아닌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한 사적 이해 개념이다. 남부는 프랑스 식민지배의 전초기지로 개발됨으로써 북부보다 먼저 산업화 단계로 들어서게 된다(한도현 2000). 이어진 2차 세계 대전의 영향으로 대량소비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이 사이공을 중심으로 팽창한다(한도현 2000: 69-70). 공산화 과정 역시 남부의 자본주의 발달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통일 이전 “베트남남부해방민족전선”(NLF)에 의해 진행된 토지 개혁은, 남부 농촌에 평준화된 토지소유와 중농이 다수를 구성하는 사회경제적 유산을 남겼다(이한우 2002: 65-7). 이로 인해 남부 베트남인들 사이에 토지사유 관념이 상당히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으며, 이는 통일 이후 남부를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하려는 국가 정책이 농업 집체화에 반대하고 토지의 사적 소유를 견지하려는 농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에 유리한 제도는 물론 멘탈리티 역시 북부보다 남부에 더욱 오랜 역사적 뿌리를 두고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9) 남부인들은 친척이든 마을 사람이든 아니면 외부로부터 온 젊은이든 기술을 배우려는 자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반면 중국, 한국, 일본, 심지어 북 베트남에서도 핵심 기술의 전승은 직계 아들이나 친족 등과 같이 혈연관계에 있는 후계자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보통이라 할 수 있다(최병욱 2008: 230-1).

<표 2> 베트남 북부와 남부의 역사·사회·문화적 차이

	북부	남부
지리적 환경	친족, 마을 공동체 중심의 응집된 주거형태	핵가족 중심의 분산적 주거형태 집단적 거주 회박
문화/종교	유교, 불교	천주교, 호아하오교, 까오다이교
전통적 자치조직	향약 발달	향약 미발달
종족적 다양성	낮음	인구 이동 높음 다민족 영역
경제	농업 기반 마을공동사업 중심의 부분적 상업화	상업 및 산업 조기 발달
자본주의 발전	더딤	자본주의적 제도와 멘탈리티 조기 발달

위의 논의를 종합하여 남북부의 차이를 도표화하면 <표 2>와 같다. 여기서 보듯이 현재 전제되고 있는 남북부의 사회자본 차이는 오랜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위에 열거한 역사적 사실로부터 우리는 남북부의 사회자본, 특히 연결망과 신뢰에 대한 가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볼 수 있다. 베트남 북부의 경우 농업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형성된 폐쇄적인 친족, 마을 공동체는 이후 유교 국가의 통치 이데올로기와 친족 중심적 에토스에 의해 강화되며, 강한 연대로 구성된 폐쇄적 형태의 연결망을 발달시키게 된다. 이는 퍼트남이 관찰한 이탈리아 남부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나쁜” 사회자본에 가깝다. 퍼트남에 따르면 강한 연대의 폐쇄적 연결망은 내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제한적 신뢰를 강화하는 반면, 외부인에 대한 일반적 신뢰의 발달을 저해한다. 따라서 베트남 북부는 높은 수준의 “제한적 신뢰”, 그리고 낮은 수준의 “일반적 신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가정해 볼 수 있다.

베트남 남부의 경우 동남아 전통사회의 특성으로 일컬어지는 “느슨한 사회”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Ringmar 2005). 이는 가족, 친족 등 1차 집단의 협소한 범위를 넘어서는 개방적인 형태의 약한 연대가 지배적임을 의미한다. 이는 베트남의 가설에서 이탈리아 북부와 유사한 “좋은” 사회자본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개방적 연결망이 일반적 신뢰를 낳는다는 좋은 사회자본 이론을 적용해보면, 남부의 “제한적 신뢰”는 낮고 “일반적 신뢰”는 높을 것이라는 가설이 성립된다. 그렇다면 이 가설들이 실제 현재의 베트남 남북부의 사회자본의 특성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자.

Ⅲ. 베트남 남북부의 사회자본의 조사 방법과 분석 결과

1. 사회자본의 측정과 조사 방법

본 연구는 앞선 이론적 탐구를 기초로 도출된 가설들이 베트남 현실에 어느 정도의 적합성을 갖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북부와 남부의 응답자들은 각각 하노이와 호치민시 인근에 거주하며,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60세 이하의 베트남인으로 한정하였다.¹⁰⁾ 설문기간은

10) 본 연구는 응답자의 지역 배경을 정확히 추적하기 위해, 베트남을 10개의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고향을 물어보았다. 우선 베트남을 크게 북부, 중부, 남부의 세 지역으로 구분한 다음, 북부는 홍하델타(Red River Delta), 북동(North East), 북서(North West)로 세분하고, 중부는 북중부해안(North Central Coast), 남동중부해안(South East Central Coast), 중부고원(Central Highlands)으로, 마지막으로 남부는 남동지방(South East)과 메콩델타(Mekong River Delta)로 세분하였다. 이와 같은 8개 지역에 추가해 직접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두 지역 즉 하노이(북부)와 호치민시(남부)를 각각 포함시켜 10개의 지역범주를 구성하였다. 익명의 논평자는 본 논문

2009년 6월 28일부터 2009년 8월 28일까지 두 달이었으며, 설문지역은 북부 하노이와 남부 호치민시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하노이 인근과 호치민시, 두 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각각 250명을 목표로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적으로 북부 258개, 남부 240개의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한편 조사는 응답자의 경제수준을 통제하기 위해 두 지역에서 소득수준별로 상층, 중층, 하층의 구성 비율이 동일하도록 대상자들을 할당하여 시행하였다.¹¹⁾ 그 이유는 응답자가 보여주는 사회자본의 차이가 남북부라는 지역 변수 때문이 아니라 소득변수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본 연구의 표본은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이 아니고 소득수준에 따른 표적추출(targeted sampling) 방법에 의지했다.¹²⁾

본 연구의 설문지는 응답자들의 사회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들 가운데 특히 연결망과 신뢰에 초점을 맞추어 고안되었다(부록 설문지 참고).¹³⁾

이 호치민과 하노이라는 대도시에만 집중되어 조사가 이루어진 한계를 지적하였으나, 위와 같이 대도시 이외의 지역배경을 가진 설문자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본 논문의 주제가 경제발전과 사회자본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만큼 공식부문의 경제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대도시의 경제활동 인구를 설문 대상으로 하였다. 지역 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백용훈(2011)을, 그리고 이 변수를 분석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이유는 본 논문의 각주 16번을 참고할 것.

- 11) 베트남의 소득수준에서 봤을 때 상층은 월소득 1천만동 이상(약 \$550 이상), 하층은 2백만동 이하(약 \$110 이하), 그리고 중층은 상층과 하층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수준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구분하였다(1\$ = 17,857VND, 2009년 8월 21일 환율 기준). 이에 근거하여 북부와 남부의 응답자들은 상층에서 15.5%, 중층에서 64.2%, 그리고 하층에서 20.3%를 모집하였다. 이러한 비율은 다양한 통계지표에서 나타나는 베트남 전체 인구의 소득분포와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백용훈 2011).
- 12) 설문에 응답한 베트남인들은 주로 거리 노점상인들, 상점 혹은 식당 종업원들, 공장(제조업, 건설업체) 노동자들, 교사, 연구원 그리고 은행 직원 등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백용훈(2011) 참고할 것.
- 13) 본 조사에서 규범의 측정을 생략한 이유는 신뢰와 규범이 사실상 분리불가능한 특질이라는 판단 때문이다(류석춘·왕혜숙·박소연 2008). 또한 규범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형질의 것이 아니라 질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작적으로 문항을

먼저 연결망의 측정을 보도록 하자. “연결망”은 사람들 사이의 다양한 연대(ties)에 기반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말한다. 연결망은 접촉 빈도, 접촉 주기, 교환되는 자원의 중첩성, 교환되는 자원의 대칭성, 연결망의 밀도, 성원의 동질성 등의 기준에 따라 “강한 연대”와 “약한 연대” 또는 “폐쇄적(결속적) 연결망”과 “개방적(교량적) 연결망”으로 구분된다(김용학 2004; Granovetter 1973). 본 연구는 연결망을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들 가운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항목 세 가지 즉 접촉 “빈도” 및 연결망의 “강도” 그리고 “확장성/폐쇄성”을 측정하였다.

접촉 “빈도”는 가족, 친구, 직장동료, 종교단체, 봉사단체 등의 집단에서 얼마나 자주 여가 및 취미시간을 보내는가의 질문을 통해 각 집단들과 개인의 접촉 빈도를 측정하였다(문 1-5). 연결망의 “강도” 항목은 주관적, 심리적인 강도를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위에 열거된 집단 구성원들의 경조사에 얼마나 자주 참석하는가에 대한 질문(문 26-31)과 응답자 개인이 주관적으로 가장 강한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을 질문하여 측정하였다(문 55). 이를 통해 응답자 개인이 어느 집단에 가장 강한 도덕적 의무감과 귀속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결망의 “확장성/폐쇄성”에 대해서는 베트남인들이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14개의 자발적 결사체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가입여부를 질문하여 측정하였다(문 8-21). 이러한 세 가지 항목을 통하여 본 조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응답자들의 연결망의 형태가 얼마나 개방적인지 아니면 폐쇄적인지를 통계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신뢰의 측정을 보도록 하자. 신뢰 개념은 신뢰의 대상, 주체, 원인, 결과 등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석적 개념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그 가운데 본 논문은 사람에 대한 신뢰의 두 가지 차원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신뢰할 만한 수준의 응답을 받아내기는 불가능하다.

인 “일반적 신뢰”와 “제한적 신뢰” 그리고 “제도에 대한 신뢰” 모두 세 가지 항목을 측정하였다. 신뢰의 대상을 기준으로, 신뢰는 크게 사람에 대한 신뢰(대인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제도 신뢰)로 구분된다(김용학·손재석 1998; 이재열 1998, 2001; 류석춘·장미혜·배영 2002). 사람에 대한 신뢰는 그 범위를 기준으로, 면식이 없는 타인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를 신뢰하는 경우를 “일반적(보편적) 신뢰”, 면식관계에 기반한 특수 관계인을 신뢰하는 “제한적 신뢰”로 나누어 질 수 있다(류석춘·왕혜숙·박소연 2008). 특히 제한적 신뢰는 특정 인간관계에 대한 사적 신뢰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제도에 대한 신뢰”와 상반된 의미를 갖기도 한다. 제도에 대한 신뢰가 공식제도 즉 공적 기구의 공공성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공적 신뢰로도 이해되기 때문이다(이재혁 2006: 63). 이와 같은 신뢰 개념은 앞서 본 <표 1>에도 정리되어 있다.

먼저 대인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 학교동창, 같은 고향사람, 모임/단체회원, 낯선 베트남인, 낯선 외국인 등과 같은 신뢰의 대상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응답자가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를 질문하였다(문 32-40). 이와 더불어 개인의 일반적 신뢰 경향을 묻는 문항은 물론 개인의 일반적 불신 경향을 측정하는 다양한 문항들도 구성하였다(문 57-68).¹⁴⁾ 이 두 항목은 “일반적 신뢰” 또는 “제한적 신뢰”의 수준을 계량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음으로 “제도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베트남인들이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14개의 공공단체 및 조직을 제시하고 각 대상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를 질문하였다(문 41-54).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자본의 측정항목을 문항에 따라 정리하면

14) “신뢰가 낮음”과 “불신”은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불신을 단독적으로 측정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두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는 최종렬(2005)을 참고할 것.

다음의 <표 3>과 같다.¹⁵⁾

<표 3> 사회자본의 측정

연결망의 측정		강한 연대	약한 연대
접촉 빈도	문 1-5	높다	낮다
연결망의 강도	문 26-31, 55	강하다	약하다
연결망의 확장성	문 8-22	폐쇄적, 제한적	확장적, 개방적
신뢰의 측정		일반적(보편적) 신뢰	제한적(사적) 신뢰
대인 신뢰	문 32-40	일반적 타인	친족 및 가족 중심
제도 신뢰	문 41-54	높다	낮다
일반적 신뢰/불신 경향	문 57-78	신뢰	불신

2. 베트남 남북부의 비교 분석 결과

이제부터는 북부와 남부의 응답자 각각 258명과 240명을 대상으로 한 연결망과 신뢰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¹⁶⁾ 먼저 연결망에 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연결망은 접촉 빈도, 연결

15) 이 논문에서의 사용하고 있는 신뢰의 개념은 분석적 편의를 위해 매우 단순화된 개념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류석춘·왕혜숙·박소연(2008)을 참고할 것.

16) 북부 응답자 총 258명 가운데 북부지역 출신은 220명(85.3%), 남부 응답자 총 240명 가운데 남부지역 출신은 132명(55.5%)으로 나타났다. 즉, 남부 응답자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온 응답자가 북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진짜 북부 사람”과 “진짜 남부 사람”만을 추출하여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올바른 분석방법이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예비분석에서 “진짜 북부”, “진짜 남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북부와 남부의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백용훈,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부와 남부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는 북부와 남부 응답들이 각각 북부인과 남부인으로서 대표성을 갖는다고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익명의 논평자들은 본 논문의 제목에서 “북부”와 “남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으나, 위 예비분석 결과는 본 제목의 타당성을 지지해준다고 판단된다.

망의 강도, 확장성/폐쇄성 세 가지를 중심으로 측정되었다. <표 4>는 설문에 제시된 각 집단의 접촉빈도 평균을 보여준다(최소값=1, 최대값=4). 남북부 모두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집단은 가족>직장동료>친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북부가 이 세 집단에서는 모두 남부보다 높은 평균값을 보여주었으나, 이 가운데 친구 항목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¹⁷⁾ 즉 북부가 남부에 비해 친구와 여가시간을 보내는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남북부 공통적으로 낮은 접촉빈도를 보인 항목은 종교단체와 봉사단체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교단체의 경우 남부가 북부에 비해 높은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남부가 북부에 비해 종교단체에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접촉빈도 평균의 남북부 비교 (최소값=1, 최대값=4)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N]	전체	북부 (하노이)		남부 (호치민시)	t
가족 (문1)	3.46 (0.75) [490]	3.51 (0.72) [254]	≐	3.42 (0.79) [236]	1.302
친구 (문2)	2.98 (0.82) [489]	3.09 (0.79) [254]	>	2.85 (0.84) [235]	3.300***
직장동료 (문3)	3.20 (0.87) [467]	3.23 (0.87) [241]	≐	3.17 (0.87) [226]	0.796
종교단체 (문4)	1.65 (0.84) [393]	1.52 (0.78) [219]	<	1.80 (0.89) [174]	-3.294***
봉사단체 (문5)	1.90 (0.98) [414]	1.84 (1.04) [218]	≐	1.95 (0.92) [196]	-1.136

*p<0.05, **p<0.01, ***p<0.001

두 번째로 연결망의 강도를 살펴보자. 경조사 참석을 통해 측정된 연결망의 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에 정리되어 있다. 여기서

17) 이 논문에 제시된 베트남 북부와 남부의 두 집단 간 평균 차이에 대한 모든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백용훈(2011)을 참고할 것.

보듯이 남북부 응답자가 공통적으로 강한 의무감을 느끼는 집단은 친척>친구>직장동료>이웃>학교동창>모임/단체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북부와 남부의 유의미한 차이는 친척과 직장동료, 모임/단체에서 발견된다. 즉 친척과 직장동료의 경우 북부가 남부보다 강한 의무감을 느끼며, 반대로 모임/단체의 경우 남부가 북부보다 강한 의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해보면, 북부는 친척과 직장동료 등의 1차 집단과 직업집단 중심으로, 남부는 모임/단체 등의 자발적 결사체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의무감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표 5> 연결망 강도 평균의 남북부 비교 (최소값=1, 최대값=4)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N]	전체	북부 (하노이)		남부 (호치민시)	t
친 척 (문26)	3.09 (0.79) [496]	3.22 (0.76) [257]	>	2.96 (0.79) [239]	3.659***
직장동료 (문27)	2.88 (0.75) [488]	2.96 (0.77) [252]	>	2.79 (0.71) [236]	2.564**
친 구 (문28)	2.97 (0.74) [497]	3.00 (0.73) [258]	≐	2.95 (0.75) [239]	0.763
이 웃 (문29)	2.51 (0.78) [486]	2.52 (0.76) [253]	≐	2.50 (0.79) [233]	0.571
학교동창 (문30)	2.15 (0.70) [446]	2.13 (0.70) [237]	≐	2.17 (0.70) [209]	-0.613
모임/단체(문31)	1.78 (0.91) [351]	1.57 (0.77) [187]	<	2.01 (1.00) [164]	-4.588***

*p<0.05, **p<0.01, ***p<0.001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북부의 경우 최대값을 보인 친척에 대한 의무감(3.22)과 최소값을 보인 모임/단체에 대한 의무감(1.57)의 평균값이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등 의무감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반면 남부는 최대값(친척=2.96)과 최소값(모임단체=2.01)의 차이가 북부만큼 크지 않다. 이는 남부 응답자들이 여러

단체들에 분산된 의무감을 보인다고 해석될 수 있다.

주관적인 소속감을 통해 측정된 연결망의 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6>에 정리되어 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부 모두 가장 강한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은 가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북부의 차이 또한 확연히 드러나는데, 북부 응답자는 67.3%가 가족이라고 응답한 것에 비해, 남부 응답자는 49.8%만이 가족에 소속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반면 남부의 상당수 응답자들은 가족 외에 직장과 친구집단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속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같은 항목의 북부와 비교해보면 분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북부는 주로 가족을 중심으로 강한 소속감을 보이는 반면, 남부는 가족 외에도 직장과 친구집단 등 다양한 집단들에 분산된 소속감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¹⁸⁾ 이는 앞서 <표 5>에서 나타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남부의 연결망이 북부의 연결망에 비해 더욱 확장적임을 보여주는 분석결과이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18) 익명의 논평자는 위의 분석 결과에 대해서 남부 베트남인들이 분산된 소속감을 가진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소속감이 희박하다는 지적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추가적인 분석 결과, 소속감 전체 평균을 비교해보면, 북부는 2.56, 남부는 2.52이며 두 집단의 평균차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속감 총량에 있어서는 남부인과 북부인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남부인도 북부인과 똑같이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6> 소속감의 남북부 비교

사례수 (%)	북부 (하노이)		남부 (호치민시)		전체	
가족	171	(67.3)	119	(49.8)	290	(58.8)
직장	30	(11.8)	50	(20.9)	80	(16.2)
친구	7	(2.8)	22	(9.2)	29	(5.9)
이웃/지역사회	2	(0.8)	2	(0.8)	4	(0.8)
학교	0	(0.0)	1	(0.4)	1	(0.2)
없음	44	(17.3)	45	(18.8)	89	(18.1)
합계	254	(100.0)	239	(100.0)	494	(100.0)

* $\chi^2 = 22.659$ (df = 5), $p < 0.001$

자발적 결사체 참여 항목에서 남북부의 연결망의 차이는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다. 14개 종류의 다양한 사회단체의 가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 북부의 응답자들은 조직가입 수에서도 뒤쳐질 뿐만 아니라, 그 종류에 있어서도 소수의 단체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남부의 응답자들은 북부의 응답자들에 비해 양적으로 활성화된 그리고 질적으로도 다양한 단체 활동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문화, 노동, 정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모든 단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남북부의 단체가입 현황을 보다 명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설문지에 제시된 14개의 단체에 대한 가입 여부를 점수화하고(미가입=0, 가입=1), 이를 합산하여 응답자들의 조직가입 점수를 만들어 분석하였다(최소값=0, 최대값=14). <표 7>은 전체 조직가입 점수의 남북부 평균을 비교한 결과이다. 여기서 드러나듯이 남부는 북부에 비해 조직가입 점수가 전체적으로 높는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따라서 남부는 북부에 비해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에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는 반면, 북부는 전반적으로 가입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가입한 단체의 종류 역시 소수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부가 북부에 비해 더욱 확장적인 연결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7> 조직가입 점수 평균의 남북부 비교 (최소값=0, 최대값=14)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N]	전체	북부 (하노이)	남부 (호치민시)	t
조직가입 점수	2.81 (2.93) [474]	1.99 (2.23) [247]	< 3.71 (3.32) [227]	38.509***

*p<0.05, **p<0.01, ***p<0.001

다음으로 신뢰의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자. 앞서 밝혔듯이, 본 연구는 신뢰의 대상을 기준으로 “대인 신뢰”와 “제도 신뢰”로 나누어 설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대인 신뢰의 차원을 살펴보면, <표 8>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신뢰 대상에 대해서 북부가 남부에 비해 높은 신뢰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면식관계에 기초한 제한된 신뢰에 있어서는 북부가 남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일반적 신뢰를 묻는 항목 가운데 “낯선 베트남인”에 대한 신뢰에서도 북부가 남부에 비해 높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제한된 신뢰”와 “일반적 신뢰” 모두에 있어서 북부가 남부에 비해 더욱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8> 대인 신뢰 평균값의 남북부 비교 (최소값=1, 최대값=4)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N]	전체	북부 (하노이)		남부 (호치민시)	t
가족 (문32)	3.82 (0.44) [497]	3.82 (0.44) [258]	≐	3.83 (0.44) [239]	-0.375
친구 (문33)	2.93 (0.67) [493]	3.06 (0.66) [256]	>	2.80 (0.65) [237]	4.425***
이웃 (문34)	2.25 (0.62) [475]	2.34 (0.62) [247]	>	2.14 (0.61) [228]	3.539***
직장동료 (문35)	2.57 (0.62) [483]	2.65 (0.60) [250]	>	2.48 (0.62) [233]	3.088***
학교동창 (문36)	2.20 (0.57) [461]	2.27 (0.57) [238]	>	2.13 (0.56) [223]	2.658***
같은 고향사람 (문37)	2.14 (0.57) [450]	2.17 (0.55) [239]	≐	2.09 (0.60) [211]	1.350
모임/단체회원 (문38)	1.93 (0.79) [325]	1.84 (0.76) [169]	<	2.03 (0.80) [156]	-2.205*
낯선 베트남인 (문39)	1.94 (0.65) [438]	2.04 (0.65) [229]	>	1.82 (0.61) [209]	3.652***
낯선 외국인 (문40)	1.85 (0.64) [422]	1.89 (0.63) [225]	≐	1.81 (0.64) [197]	1.247

*p<0.05, **p<0.01, ***p<0.001

다음으로 제도 신뢰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자.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묻는 항목에서는 남북부가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14개의 제도 및 기구에 대한 신뢰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남부가 북부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 가운데 유일하게 종교단체와 군대에 대한 신뢰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표 9> 제도 신뢰 평균값의 남북부 비교 (최소값=1, 최대값=4)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N]	전체	북부 (하노이)		남부 (호치민시)	t
종교단체 (문41)	2.07 (0.86) [453]	1.84 (0.70) [236]	<	2.32 (0.94) [217]	-6.202***
군대 (문42)	2.50 (0.90) [469]	2.40 (0.88) [248]	<	2.62 (0.90) [221]	-2.731**
신문/잡지 (문43)	2.36 (0.62) [487]	2.34 (0.61) [253]	≒	2.37 (0.62) [234]	-0.497
텔레비전 (문44)	2.60 (0.68) [486]	2.59 (0.64) [249]	≒	2.61 (0.71) [237]	-0.414
노동조합 (문45)	2.49 (0.72) [471]	2.45 (0.72) [243]	≒	2.53 (0.72) [228]	-1.109
경찰 (문46)	2.56 (0.81) [484]	2.57 (0.78) [251]	≒	2.54 (0.85) [233]	0.445
행정부 (문47)	2.92 (0.83) [476]	2.87 (0.78) [246]	≒	2.96 (0.87) [230]	-1.090
정당 (문48)	2.63 (0.83) [469]	2.66 (0.76) [244]	≒	2.60 (0.91) [225]	0.719
국회 (문49)	2.95 (0.84) [472]	2.89 (0.77) [247]	≒	3.03 (0.92) [225]	-1.751
공무원 (문50)	2.23 (0.66) [448]	2.19 (0.67) [235]	≒	2.27 (0.66) [213]	-1.144
대기업 (문51)	2.34 (0.66) [464]	2.32 (0.63) [241]	≒	2.37 (0.68) [223]	-0.723
환경운동단체 (문52)	2.46 (0.76) [466]	2.46 (0.70) [240]	≒	2.46 (0.82) [226]	-0.151
여성운동단체 (문53)	2.49 (0.78) [459]	2.53 (0.73) [242]	≒	2.45 (0.83) [217]	1.121
ASEAN (문54)	2.51 (0.79) [436]	2.49 (0.75) [234]	≒	2.53 (0.83) [202]	-0.563

*p<0.05, **p<0.01, ***p<0.001

앞서 대인 신뢰와 제도 신뢰는 개별적인 신뢰 대상들에 대한 각각

의 신뢰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별 응답자들의 대인 신뢰를 나타내는 값들의 평균을 구하여 이를 “대인신뢰종합” 점수로, 그리고 제도 신뢰를 나타내는 값들의 평균을 구하여 이를 “제도신뢰종합” 점수로 구성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보듯이 북부가 남부에 비해 높은 대인 신뢰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반면 제도 신뢰의 경우 남부가 북부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

<표 10> 대인신뢰종합 및 제도신뢰종합 평균값의 남북부 비교 (최소값=1, 최대값=4)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N]	전체	북부 (하노이)	남부 호치민시	t
대인신뢰종합	2.38 (0.37) [266]	2.44 (0.35) [137]	> 2.32 (0.39) [129]	2.646**
제도신뢰종합	2.49 (0.48) [355]	2.45 (0.46) [199]	= 2.54 (0.51) [156]	-1.735

*p<0.05, **p<0.01, ***p<0.001

다음으로 응답자들의 신뢰/불신 경향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자. 아래의 <표 11>과 <표 12>는 남북부 응답자들의 신뢰/불신의 일반적 경향을 정리한 표이다. 먼저 일반적 신뢰를 묻는 항목들에서 북부의 응답자들이 남부의 응답자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신뢰 수준을 나타냈다. 이 가운데 남북부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항목은 두 가지, 즉 ‘나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편이다’라는 본인 스스로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 문항(문 61)과 ‘대부분의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타인에 대한 신뢰성 평가 문항(문 62)이다. 일반적 불신에

있어서는 남북부의 차이가 더욱 뚜렷이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항목에서 남부는 북부에 비해 높은 불신을 드러냈다. 또한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상당히 유의미하다. 즉 남부의 응답자들이 북부의 응답자들에 비해 타인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신뢰 경향에 대한 분석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북부가 남부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은 신뢰 수준을 보이는 반면, 남부는 북부에 비해 불신의 정도가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1> 신뢰 점수 평균의 남북부 비교 (최소값=1, 최대값=4)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N]	전체	북부 (하노이)	남부 (호치민시)	t
내가 먼저 관계를 만들어가는 편이다 (문57)	2.74 (0.74) [491]	2.77 (0.76) [256]	≐ 2.71 (0.72) [235]	0.821
대부분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직하다 (문58)	2.67 (0.72) [485]	2.69 (0.68) [250]	≐ 2.64 (0.76) [235]	0.822
대부분의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하고 착하다 (문59)	2.82 (0.68) [483]	2.85 (0.66) (251)	≐ 2.79 (0.70) [232]	0.896
대부분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신뢰한다 (문65)	2.48 (0.67) [476]	2.54 (0.62) [248]	≐ 2.42 (0.71) [228]	1.818
나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편이다 (문61)	2.48 (0.67) [492]	2.57 (0.66) [255]	> 2.39 (0.66) [237]	3.087***
대부분의 사람은 믿을 수 있다 (문62)	2.37 (0.63) [470]	2.42 (0.65) [244]	> 2.30 (0.61) [226]	1.999*

*p<0.05, **p<0.01, ***p<0.001

<표 12> 불신 점수 평균의 남북부 비교 (최소값=1, 최대값=4)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N]	전체	북부 (하노이)		남부 (호치민시)	t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한다 (문63)	2.95 (0.79) [481]	2.80 (0.76) [250]	<	3.11 (0.79) [231]	-4.460***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이익만 생각한다 (문64)	3.06 (0.76) [489]	2.96 (0.75) [252]	<	3.16 (0.76) [237]	-2.986***
이 사회에는 위선자가 많다 (문66)	2.85 (0.78) [474]	2.71 (0.72) [241]	<	3.00 (0.81) [233]	-4.081***
사람은 겉으로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 (문67)	2.85 (0.72) [470]	2.75 (0.66) [240]	<	2.95 (0.76) [230]	-3.017***
모든 사람에게 악한 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다 (문68)	2.02 (0.81) [427]	2.03 (0.76) [228]	≐	2.00 (0.86) [199]	0.447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해야 한다 (문60)	2.99 (0.75) [484]	3.00 (0.76) [252]	≐	2.98 (0.73) [232]	0.195

*p<0.05, **p<0.01, ***p<0.001

이상으로 연결망과 신뢰에 대한 항목을 중심으로 남북부의 사회자본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결망의 형태와 내용에 있어서 남북부는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북부는 주로 1차 집단과 친구, 직장동료 등 빈번한 대면 접촉을 하는 집단들에 집중된 연결망을 보여주며, 이들 집단에 대한 객관적 및 주관적 소속감 역시 높다는 점에서 강한 연대를 보여준다. 반면 남부는 친밀한 집단을 넘어선 활발한 자발적 결사체 참여에서 보듯이 약한 연대의 확장적 연결망을 보여

준다.

신뢰의 차원에서 남부는 북부에 비해 일반적 신뢰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대인 신뢰의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불신 경향이 북부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도에 대한 신뢰에서 남부가 유일하게 북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다. 북부의 경우 남부에 비해 제도에 대한 신뢰는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사람에 대한 신뢰 다시 말해 “제한된 신뢰” 및 “일반적 신뢰” 모두에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남북부 사회자본의 특징적 차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13>과 같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베트남의 사회자본 가설 즉 “좋은” 사회자본 대 “나쁜” 사회자본 가정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한다.

<표 13> 남북부 사회자본의 차이 종합

	북부 (하노이)	남부 (호치민시)
연결망	1차 집단 중심 폐쇄적, 강한 연대	1차 집단 및 자발적 결사 개방적, 약한 연대
신뢰	일반적 신뢰 높음 제한적 대인 신뢰 높음	불신 높음

IV. 베트남 남북부의 사회자본의 차이

1. 남북부의 사회자본: 연결망과 신뢰의 불일치

분석 결과 나타난 베트남 남북부의 사회자본은 베트남의 가정과 어느 정도나 부합하는가? 먼저 연결망을 중심으로 남북부의 분석결

과를 비교해 보자. 분석결과는 앞서 설정한 가설, 즉 베트남 북부는 폐쇄적인 강한 연대의 나쁜 사회자본을, 그리고 남부는 개방적인 약한 연대의 좋은 사회자본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헌 조사에서 검토한 북부 베트남 사회의 전통적 속성이 조사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북부 사람들은 친족과 친구, 연고 중심의 폐쇄적인 강한 연대를 중심으로 연결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근대적인 형태의 자발적 결사체에 대한 참여 역시 저조하다. 이들은 가족과 친구를 중심으로 하는 연고관계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집단에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이러한 경향은 WVS (World Value Survey) 자료를 활용한 다른 연구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Dalton et al. 2002).

반면 남부의 경우 문헌조사에서 살펴보았던 전통사회의 분산된 촌락, 가족구조의 성격이 자발적 결사체에 대한 개방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부 베트남인들 역시 북부 베트남인들 처럼 가족과 친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이들은 이러한 1차 집단의 범위를 넘어서 다양한 결사체와 2차 집단에서도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낸다. 또한 남부 베트남인들은 가족과 친구 외에도 직업집단과 같은 2차 집단에도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즉 남부 베트남인들의 연결망은 확장적인 약한 연대로 특징 지어진다.

앞서 역사적 고찰에서 살펴봤듯이, 북부가 이러한 전통적 특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홍하 델타의 지리적 환경에 대한 대응으로 발생한 사회관계의 특성이 유교적 통치 체제의 확립과 강화, 이후 식민화와 전쟁, 공산화의 영향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북부가 경험한 역사적 질곡 대부분이 기존의 전통사회의 특질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부의 경우 분석 결과 나타난 개방적 연결망이 남부 전통 사회의 특징이 그대로 유지 및

전승된 결과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면 전통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에 대한 참여가 현재의 남부 베트남에서 꽃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남부의 결사체 중심의 열린 연결망은 남부 전통사회에 내재되어 있던 개방성의 맹아가 역사적으로 다양한 계기를 만나면서 친족 중심의 연결망보다는 이동성이 높은 사회에서 요구되는 약한 연대에 기초한 사회자본을 대체물로 활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수세기에 걸친 상업화, 식민화, 공산화, 그리고 이어진 도이 머이 이후의 산업화 과정에서 다양한 수정과 변형을 겪으면서 개방성이 남부 사회의 특성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신뢰의 분석 결과는 어떠한가? 베트남의 가정에 따르면, “북부는 제한된 신뢰가 발달한 반면 일반적 신뢰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나쁜 사회자본을 가지고 있는 반면, 남부는 일반적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에서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좋은 사회자본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가정되었다. 그러나 분석 결과는 이러한 가정과는 상반되게 나타났다. 북부는 높은 수준의 제한된 신뢰와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일반적 신뢰를, 즉 나쁜 사회자본과 좋은 사회자본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반면 남부는 특정 제도들에 대해서만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를 드러냈을 뿐, 전반적으로 높은 불신 경향, 즉 나쁜 사회자본을 보여주었다. 이는 베트남의 신뢰에 대한 가정과는 일치하지 않는 분석결과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베트남의 가설, 특히 “신뢰”에 대한 가설이 연결망은 물론 경제발전이라는 종속변수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북부의 제한된 신뢰에 있어서만 베트남의 가설을 일부 지지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경제적으로 저발전 상태인 북부가 여전히 1차 집단을 중심으로 폐쇄적인 내집단 신뢰의 높은 수준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결국 분석 결과 가운데 베트남의 가설을 완벽하게

지지해 주는 결과는 경제발전과 연결망의 관계에서만 발견되었다. 결국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신뢰와 연결망의 관계는 물론, 신뢰와 경제발전의 관계에 대한 퍼트남의 가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찰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2. 퍼트남식 사회자본에 대한 도전

앞서 분석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는 퍼트남의 기본 가설 가운데 다음 두 가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개방적 연결망이 일반적 신뢰를 가져온다”는 “좋은” 사회자본의 가설이며, 두 번째는 “제한적 신뢰가 일반적 신뢰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나쁜” 사회자본의 가설이다.

첫 번째 문제의 근거가 되는 분석 결과는 베트남 남부에서 나타났다. 개방적이고 약한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 남부가 퍼트남의 가설과 달리 오히려 낮은 일반적 신뢰와 높은 불신 상태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분석 결과는 조사대상이 되는 지역이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중간단계에 있다는 과도기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높은 신뢰는 시장의 작동을 도움으로써 경제발전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동시에 시장화와 산업화의 진전과 그로 인한 도시화는 신뢰의 기반을 상쇄하는 효과를 갖는다(Zucker 1986).

이를 고려한다면 도시화와 경제성장 면에서 상대적으로 발전해 있는 남부가 북부에 비해 기존의 사회자본이 침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남부의 경우 산업화로 인해 기존의 전통 사회의 인간관계에 근거한 신뢰가 희박해진 반면, 북부는 본격적인 산업화 전(前)단계로서 전통사회를 지탱하던 신뢰의 기반이 아직 붕괴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북부

와 남부가 보여주는 신뢰의 차이는 동일한 경제발전 과정의 서로 다른 단계에서 발견되는 차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개방적이고 확장적인 연결망이 반드시 일반적 신뢰로 귀결되지 않음을 베트남 남부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와 모임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남부 베트남인들의 신뢰 수준은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볼 때 불신의 팽배라는 해석을 면치 못한다. 자발적 결사체의 참여가 민주주의의 학교라는 퍼트남의 명제는 베트남의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거나 명제 자체가 잘못 구성된 셈이다(이선미 2004). 그 어떤 경우에도 좋은 사회자본 이론의 보편적 설명력에 결함이 있음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베트남 남부의 신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앞서 남부의 개방적 연결망은 다양한 이민족의 끊임없는 이주와 조기에 시작된 자본주의적 발전이 만들어 낸 역사적 산물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역사적 조건들은 남부 베트남인들의 연결망을 협소한 혈연관계를 넘어 외부의 자발적 결사체를 지향하도록 만들었다. 이동에 유리하도록 최소화된 친족이나 촌락 연결망을 보완해 줄 또 다른 형태의 연결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끊임없이 이동하고 이방인들과 마주치며 생존해야 하는 조건에서는 “제한된 신뢰”를 형성할 만큼 지속적인 대면관계가 형성되기 어렵다. 나아가서 이와 같이 유동적인 사회에서는 모르는 타인에 대한 일반적 신뢰 또한 형성되기 어렵다.

이렇게 볼 때 베트남 남부 사람들은 자본주의적 발전과정에서 요구되는 신뢰와 연결망의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에 대한 약한 신뢰와 왕성한 결사체 참여를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남부의 상황에서 형성될 수 있는 것은 미약한 수준의 추상적인 제도에 대한 신뢰였다. 그나마 종교라는 초월적 힘에 기대거나 군대

라는 억압적 통제수단에 의지하고 믿는 것이 남부 베트남인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신뢰인 셈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에 대한 신뢰는 퍼트남이 말한 민주주의의 공고화와는 거리가 먼 신뢰이다(류석춘·왕혜숙·박소연 2008). 왜냐하면 개방적인 약한 연결망이 베트남 남부 사회에 가져다 준 것은 낯선 이방인은 물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조차 믿지 못하고 그저 제도에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과소사회화”된 불행한 개인들뿐이기 때문이다(Granovetter 1985).

개방적 연결망이 일반적 신뢰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좋은 사회자본 이론이 찬양해 마지않는 일반적 신뢰는 어디서 기인하는 것일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본 논문의 두 번째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사회자본에 관한 이분법에 의하면, 일반적 신뢰는 시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핵심적 요소인데 반해, 제한적 신뢰는 시장과 민주주의의 작동을 저해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또한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신뢰는 서로가 서로의 발전을 저해하는 제로섬 관계를 갖는다고 간주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베트남 북부에서 두 형태의 신뢰가 공존하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발견은 신뢰에 대한 기존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즉 “제한적 신뢰와 일반적 신뢰는 과연 제로섬 관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퍼트남이 관찰한 이탈리아 북부의 상황을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퍼트남이 시민적 결사의 모태로 평가하고 있는 북부 이탈리아의 자발적 결사체의 진정한 성격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가 강조하고 있는 시민적 문화의 기반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마을 주민들 간의 빈번한 면대면 접촉이다.¹⁹⁾ 다시 말해, 퍼트남의 시민적 결사는 특정한 면대면 관

19) 퍼트남의 연구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단체들은 성가대, 독서 클럽, 뜨개질 모임, 스포츠 동호회 등이다(Putnam 1993a).

계를 공유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역성(locality)에 기초한 공통의 지식과 배경적 기대를 공유하는 사람들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Putnam 1993a; Cohen 1999).²⁰⁾ 이로부터 우리는 자발적 결사와 협동을 만드는 것은 상호 면식에 기초한 “제한된 신뢰”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거쳐서 학습된 신뢰가 “일반적 신뢰”로 발전한다는 추론을 제기할 수 있다(류석춘·왕혜숙·박소연 2008). 자신의 이웃을 신뢰할 수 있어야 일반적 타자인 동료 시민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베트남 남부의 불신 상황을 통해서 역으로도 뒷받침된다.

이러한 추론은 “제한된 신뢰”와 “일반적 신뢰”의 관계가 결코제로섬 관계가 아님을 시사한다. 오히려 일반적 신뢰는 상당한 기간 동안 알고 지낸 구체적인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축적된다(Offe 1999: 50; Yamagishi & Yamagishi 1994). 신뢰의 유지를 위한 조건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제한적이고 특정적인 기준에 따라 규제되는 가족이나 친족과 같이 제한된 범위의 사회적 활동과 상호작용 속에서 가장 잘 충족될 수 있기 때문이다(Offe 1999: 55).

V. 맺음말

비록 본 연구가 경제발전 과정에 있는 베트남이라는 제한적 대상에 근거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질지라도, 사회자본의 이분법에 대한 문제제기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는 물론 동남아시아 이외의 지역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제3세계 국가에

20) 코헨 역시 퍼트남이 본 자발적 결사의 모습은 면대면 개인 간 신뢰(interpersonal trust generated in face-to-face relationships)에 가까우며 이는 일반적 신뢰와 구분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Cohen 1999: 221).

상당한 함의를 가진다(Chen 2005). 사회자본의 이분법이 만들어내는 딜레마는 비단 베트남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베트남 특히 북부 베트남이 보여준 친족, 지역 중심의 강한 연대는 동남아시아 사회의 일반적 특징인 동시에, 동남아시아의 경제적 및 정치적 저발전을 논의하는 문헌에서 대부분 저발전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특성이다(이재혁 1996; 박은홍 2004; 한도현 2004).²¹⁾ 보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의 편감 나아가서 중국이나 한국에 지배적인 전통적 관계맺음의 방식은 많은 근대주의자들에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의 장애물인 동시에 개혁과 타파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베트남의 사례는 근대주의자들의 주장에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근대주의자들의 회구의 대상인 “일반적 신뢰”와 타파의 대상인 “제한적 신뢰”가 공존하는 사실을 베트남 사례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아시아적 특수성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즉, 강한 내집단 신뢰가 일반적 신뢰와 양립 가능한 현상 자체가 아시아에서만 발견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문화 상대주의나 아시아적 특수성으로 얼버무리기엔 서구 사회 역시 이러한 특수성을 보편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의 경우 가족 기업 형태가 주식회사 형태보다 훨씬 일반적인 기업 조직화 방식임은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강한 내집단 신뢰가 반드시 일반적 신뢰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대안적 해석이 필요하다. 제한적 신뢰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에 방해가 되기는커녕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서 다양한 민주주의와 시장체제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문화적 자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²²⁾

21) 특히 베트남의 맥락에서 마을 공동체 전통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지역주의의 근원이며 자기 마을의 이익만 차리고 국가 민족의 이익을 무시하는 경향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는다(한도현 2004: 311-2).

22)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관점에서 윌리엄슨(Williamson 1975)은 “위계”(hierarchy) 즉

물론 이 연구에서 제기하는 주장이 현실적 적합성과 예측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더욱 가시적인 증거들이 필요하다. 즉 베트남 북부도 남부만큼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의 경제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이 논문의 함의는 일반적 신뢰와는 상관없이 “약한 연대”로 구성된 불신 사회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으로 축소되어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좋은” 사회자본을 주장하는 학자들에게도 받아들이기 힘들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행히 최근 통계와 보도는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북부 베트남의 경제발전이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 언론 자료에 따르면,²³⁾ 2008년 베트남 전체의 1인당 GDP는 1,000 달러를 넘었고, 하노이는 1,700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이 수치는 호치민시의 2,500 달러와는 거리가 먼 수준이지만, 과거 하노이가 베트남 전체의 평균 이하 수준을 기록해 왔던 사실을 고려하면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또 다른 최근 자료 역시 베트남에서 미래에 가장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도시로 호치민과 하노이를 나란히 1위를 꼽고 있다.²⁴⁾

아직 본격적인 자본주의적 도약(take-off)을 시작하지 않은 베트남

제도가 만들어 내는 신뢰를 강조한 반면, 그라노베터는 “구체적인 사회관계” 혹은 “친밀성”(intimacy)에 배태된 신뢰를 대안으로 주장한다.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85: 490)는 “배태”의 개념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친밀한 개인간 관계가 신뢰를 발생시키며, 그럼으로써 시장에서의 부정행동을 제한한다고 설명한다. 신뢰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배태의 개념은 과잉사회화된 개인들에 의해 내면화되는 일반화된 도덕성에 호소하기보다, 구체적인 개인간 관계와 이러한 관계들이 만들어 내는 사회구조가 이기적인 개인들에게 신뢰를 제공하고 그 결과 인격화된 교환을 통해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한다. 결국 시장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일반적 신뢰가 아니라, 행위자들간의 구체적이고 특정한 관계에 배태된 신뢰라는 주장이다.

23)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ctg=11&Total_ID=3832164. (2011년 9월 20일 검색)

24) 이 자료를 제시한 Pricewaterhouse Coopers는 세계 4대 회계기업 가운데 하나이다 (출처: Wikipedia).

북부의 상황을 놓고 이 논문의 분석만을 근거로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작업은 무리한 일인지도 모른다. 더욱이 베트남 남북부의 경제발전은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진행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회자본의 효과만을 따로 떼어 내어서 논의를 진행시키는 작업이 단편적인 접근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베트남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사회자본 이론의 생산적인 발전을 위해서 향후 베트남의 발전과정을 보다 치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남은 일은 베트남 남북부에서 벌어지는 시간과의 경쟁을 지켜보는 작업이다.

주제어: 베트남, 사회자본, 퍼트남, 하노이, 호치민시, 일반적 신뢰, 제한적 신뢰, 연결망

〈참고문헌〉

- 구엔퀴흥. 1980. “베트남의 교회와 국가.” 『기독교사상』 264. pp. 79-85.
- 김용학. 2004. 『사회 연결망 이론』. 서울: 박영사.
- _____. 손재석. 1998. “미시적 신뢰와 거시적 위험.” 『계간사상』 가을호. pp. 115-132.
- 김종욱. 1998. “베트남 민간신앙 체계에 관한 고찰.” 『동남아연구』 7. pp. 43-66.
- _____. 2003. “베트남 경제 발전의 정치 동학(1976-1997).” 『동남아시아연구』 13(2). pp. 251-286.
- 류석춘. 1994. “필리핀의 사회제도: 가족, 종교, 교육.” 『동남아시아연구』 3호. pp. 91-128.

- _____ · 장미혜. 2002. “사회자본과 한국사회.” 류석춘 · 장미혜 · 정병은 · 배영 공편역.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pp. 169-211. 서울: 그린.
- _____ · 장미혜 · 배영. 2002. “사회자본과 신뢰: 한국, 일본, 덴마크, 스웨덴의 비교연구.” 류석춘 편저. 『한국의 시민사회, 연고집단, 사회자본』. pp. 215-255. 자유기업원.
- _____ · 왕혜숙. 2008. “사회자본 개념으로 재구성한 한국의 경제발전.” 『사회와이론』 12. pp. 109-162.
- _____ · 왕혜숙 · 박소연. 2008. “연고집단과 자발적 결사체의 신뢰 비교 연구: 동창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동양사회사상』 15(1). pp. 203-269.
- 박은홍. 2004. “지배구조의 자유화, 사회적 신뢰, 민주주의: 인도네시아와 타이의 비교.” 『동남아시아연구』 14(2). pp. 263-298.
- 박종철. 1996. “통일베트남 남·북부의 갈등과 사회주의 개혁개방.” 『역사비평』 36. pp. 56-66.
- 백용훈. 2011. “베트남 남부와 북부의 사회자본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 야마기시 토시오(山岸俊男). 김의철 · 박영신 · 이상미 역. 2001. 『신뢰의 구조』. 교육과학사.
- 양중희. 2004. “싱가포르의 자본주의적 발전, 유교문화와 사회자본.” 『동남아시아연구』 14(2). pp. 79-111.
- 유인선. 1973. “베트남 여조사회에 있어서의 가부장권.” 『아세아연구』 50. pp. 355-387.
- _____. 1989. “베트남 전통가족제도와 부부관계.” 『아시아문화』 5. pp. 165-182.
- _____. 1996. “전근대 베트남사회의 양계적 성격과 여성의 지위.” 『역사학보』 150. pp. 215-248.

- _____. 1997. “전근대 베트남의 중국가족제 수용과 변용: 가부장권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5. pp. 25-50.
- _____. 1999. “베트남인의 남진과 남부문화의 형성.” 『동방학지』 105. pp. 331-394.
- 이선미. 2004. “자원결사체가 개인간 신뢰의 상징적 제도인가?” 『한국사회학』 38(5). pp. 81-108.
- 이성량. 2007. “도이모이 이후 베트남의 수출과 경제성장.” 『국제지역연구』 11(3). pp. 383-402.
- 이재열. 1998. “민주주의,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 『계간 사상』 37. pp. 65-93.
- _____. 1999. “합리적 개인, 비합리적 사회.” 『계간 사회비평』 22. pp. 20-29.
- 이재혁. 1996. “신뢰, 거래 비용, 그리고 연결망.” 『한국사회학』 30(3). pp. 519-543.
- _____. 2006. “신뢰와 시민사회.” 『한국사회학』 40(5). pp. 61-98.
- 이한우. 2002. “통일 이후 베트남의 토지제도 전환과정에서 남부 농민의 영향력: 메콩 델타 농민들의 저항행위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12(2). pp. 63-95.
- _____. 2007. “베트남 통일 후 사회통합과정의 문제.” 『아세아연구』 129. pp. 39-63.
- 최병욱. 2000. “19세기 전반 베트남의 소수민족 정책: 남부의 상황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9. pp. 127-163.
- _____. 2008. “19세기 중반 남부베트남의 공장: 비엔호아(Bien Hoa) 도자기 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18(1). pp. 213-242.
- 최종렬. 2004. “신뢰와 호혜성의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자본.” 『한국사회학』 38(6). pp. 97-132.

- 최호림. 2003a. “베트남 도시 마을에서의 국가-사회관계: 하노이 ‘프
영 응옥 하’(Phuong Ngoc Ha)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
구』 9(1). pp. 29-74.
- _____. 2003b. “북부 베트남의 민간의례 개혁과 그 영향에 관한 연
구.” 『한국문화인류학』 36(2). pp. 183-220.
- _____. 2004. “베트남의 ‘유적공인’ 사업과 지방의 이질적인 공동
체.” 『동남아시아연구』 14(1). pp. 121-161.
- _____. 2005. “사회주의 국가, 시장 및 ‘전통’의 재생: 베트남의 체제
변화와 의례 활성화.” 『사회과학연구』 13(2). pp. 314-346.
- 퍼트남(R. Putnam). 2002[1993]. “번영하는 공동체: 사회자본과 공공
생활.” 류석춘 외 편저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서울: 도
서관출판 그린("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 (spring). pp.
35-42).
- 하 순. 1994. “베트남의 가족제도와 베트남인의 사회적 행위.” 부산
외국어대학교 『외대논총』 12. pp. 387-401.
- _____. 1997. “베트남 전통사회의 종교와 마을 공동체.” 부산외국
어대학교 『외대논총』 제16집. pp. 371-395.
- _____. 2000. “메콩델타: 역동적인 문화와 역사의 세계.” 『국제지
역연구』 4(2). pp. 81-112.
- 한국수출입은행. 2009. 『ASEAN 현황과 회원국 주요 동향』. 한국
수출입은행.
- 한도현. 2000. “시장 경제 도입 이후: 베트남의 도시화와 도시문제.”
『동남아시아연구』 10. pp. 67-94.
- _____. 2004. “향약의 조직원리와 지역자치: 베트남 모짜짜(xa Mo
Trach, 慕澤社)의 사례.” 『동남아시아연구』 13(2). pp.
287-322.

- _____. 2005a. “베트남의 종족마을(동성마을)의 구조.”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5년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pp. 95-103.
- _____. 2005b. “한국과 베트남의 종족마을(동성마을)의 구조와 변동에 대한 비교사회학적 연구: 종족집단의 구조와 종족의식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15(2). pp. 161-209.
- _____. 2007. “한국과 베트남의 두 종족마을(동성마을)의 종족의식 비교 연구.” 『농촌사회』 17(2). pp. 1-29.
- 후쿠야마(F. Fukuyama). 구승희 역. 1996. 『트러스트: 사회도덕과 번영의 창조』. 한국경제신문사.
- Bourdieu, Pierre. 1986. “The Forms of Capital.” K. G.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Sociology of Education*. pp. 241-258. New York: Greenwood.
- Burt, Ronald. 1992. *Structural Hol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hen, Xiangming. 2005. “Magic or Myth? Social Capital and Its Consequences in the Asian, Chinese and Vietnamese Contexts.” G. Mutz and R Klump eds. *Modernization and Social Transformation in Vietnam: Social Capital Formation and Institutional Building*. pp. 49-62. Hamburg: Institut für Asienkunde.
- Coleman, Jame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supplementary). pp. s95-s120.
- Cohen, Jean. 1999. “Trust, Voluntary Association and Workable Democracy: The Contemporary American Discourse of Civil Society.” M. E. Warren ed. *Democracy and Trust*. pp.

- 208-248.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lton, Russell, Pham Minh Hac, Pham Thanh Nghi, and Nhu-Ngoc Ong. 2002. "Social Relation and Social Capital in Vietnam: Findings from the 2001 World Values Survey." *Comparative Sociology* 2(3-4). pp. 369-386.
- Dalton, Russell, and Nhu-Ngoc T. Ong. 2005. "Civil Society and Social Capital in Vietnam." G. Mutz and R. Klump eds. *Social Modernization in Vietnam*. Hamburg: IFA.
- Dong, Do Thai. 1991. "Modification of the Traditional Family in the South of Vietnam." R. Liljestrom and T. Lai eds. *Sociological Studies on the Vietnamese Family*. Hanoi: Sciences Publishing House.
- Evans, Peter. 1996. "Government Action, Social Capital and Development: Reviewing the Evidence on Synergy." *World Development* 24(6). pp. 1119-1132.
- Geertz, Clifford. 1963. *Peddlers and Princes: So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Change in Two Indonesian Tow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73a.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 Classics.
- Granovetter, Mark S.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3). pp. 481-510.
- _____. 1973b.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pp. 1360-1380.
- Hickey, Gerald Cannon. 1958. *Social Systems of Northern Vietnam: A Study of Systems in Contact*.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 Leys, Colin. 1996. *The Rise and Fall of Development Theor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Lin, Nan.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ffe, Claus. 1999. "How Can We Trust Our Fellow Citizens?" M. E.
Warren ed. *Democracy and Trust*. pp. 42-87.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strom, Elinor. 1996. "Crossing the Great Divide: Coproduction,
Synergy, and Development." *World Development* 24(6). pp.
1073-1087.
- Popkin, Samuel L. 1979. *The Rational Peasant: the Political Economy of
Rural Society in Vietnam*. Berkeley and Los Angeles,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ortes, Alejandro. 1995. "Economic Sociology and the Sociology of
Immigration: A Conceptual Overview." A. Portes ed. *The
Economic Sociology of Immigration: Essays on Networks,
Ethnicity and Entrepreneurship*. pp. 1-41.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_____.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pp. 1-24.
- Putnam, Robert. 1993a.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93b.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 (spring). pp. 35-42.
- _____.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pp. 65-78.

- Ringmar, Erik. 2005. *Surviving Capitalism: How We Learned to Live with the Market and Remained Almost Human*. London: Anthem Books.
- Schiff, Maurice. 1999. "Labor Market Integration in the Presence of Social Capital."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WPS 2222*. World Bank.
- Scott, James. 1976. *The Moral Economy of the Peasant: Rebellion and Subsistence in Southeast Asi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Turner, Sarah and Phuong An Nguyen. 2005. "Young Entrepreneurs, Social Capital and Doi Moi in Hanoi, Vietnam." *Urban Studies* 42(10). pp. 1693-1710.
- Warren, Mark E. 2008. "The Nature and Logic of Bad Social Capital." D. Castiglione, J. W. van Deth, and G. Wolleb eds. *The Handbook of Social Capital*. pp. 123-14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etterberg, Anna. 2007. "Crisis, Connections, and Class: How Social Ties Affect Household Welfare." *World Development* 35(4). pp. 585-606.
- Williamson, Oliver E. 1975. *Markets and Hierarchies: Analysis and Antitrust Implications*. New York: Free Press.
- Woolcock, Michael. 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 pp. 151-208.
- Yamagishi, Toshio and Midori Yamagishi. 1994. "Trust and Commit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Motivation and Emotion* 18(2). pp. 129-166.

Zucker, Lynne G. 1986. "Production of Trust: Institutional Sources of Economic Structure, 1840-1920."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8. pp. 53-111.

(2011. 09. 26. 투고; 2011. 10. 17 심사; 2011. 10. 24 게재확정)

[부 록] 2009 베트남 사회자본 설문지 (한국어)

2009 베트남 북부와 남부 사회자본 비교

안녕하십니까?

이 조사는 베트남 북부와 남부의 가치관 비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의 내용은 사회적 관계(네트워크, 신뢰)가 갖는 형태와 특성에 관한 것으로 주위 사람들과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여쭙어보고자 합니다.

귀하의 응답은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며, 통계적인 분석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학술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만 활용하겠습니다. 이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고 조사 문항에는 맞고 틀리는 정답이 없으므로 귀하의 평소 의견대로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조사 주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 지역학협동과정

조사 책임자: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류 석 춘 교수

조사 담당자: 연세대학교 지역학과 백 용 훈 연구원

조사 문의: 095-318-2373 / beakyh@hanmail.net

[연구원 기입]

1. 조사일시:
2. 조사원 이름:
3. 조사가 실시된 지역:

[문1~문5] 여가/취미생활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각 문항에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해주시오.

	전혀 안함	일년에 몇번	한달에 한두번	일주일에 한번	모름
문 1 가족/친척들과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문 2 친구들과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문 3 직장 동료들과 교체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문 4 교회, 사찰 등에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문 5 체육시설이나 자원봉사 혹은 봉사단체에서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문 6~문 7] 아래의 문항에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문 6] 개인적인 삶에 대하여 주로 누구와 이야기하는 편입니까? ()

[문 7] 고민거리가 있을 때, 누구를 주로 찾습니까? ()

- ① 가족/친척 ② 친구 ③ 직장동료
④ 종교단체 회원 ⑤ 봉사단체 등 클럽회원 ⑥ 기타(자세히 표기) :

[문 8~문 22] 귀하께서 회원으로 계신 단체를 표시해 주십시오.

(중복되는 경우 모두 표기해 주십시오)

	비회원	회원
문 8 노인, 장애인 또는 노숙자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①	②
문 9 종교단체	①	②
문 10 교육, 예술, 음악, 문화적 활동	①	②
문 11 노동단체	①	②
문 12 정당, 정치단체	①	②
문 13 가난, 고용, 주거, 인종간 평등과 관련된 지역사회 활동	①	②
문 14 제3세계의 발전 또는 인권문제	①	②
문 15 자연보호, 환경, 동물보호 단체	①	②

문 16	전문가 협회	①	②
문 17	청소년 활동(스카우트, 가이드, 청소년 클럽 등)	①	②
문 18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①	②
문 19	여성단체	①	②
문 20	평화운동	①	②
문 21	건강과 관련된 자원단체	①	②
문 22	기타 단체	①	②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안됨	어느 정도 도움됨	매우 도움됨	모름
문 23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귀하의 개인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①	②	③	④	⑤

[문 24] 귀하는 직장을 구할 때 주로 어떤 방법을 이용하십니까? ()

- ① 친구 등 지인의 소개 ② 막연히 아는 사람을 통해서
- ③ 스스로 알아서 ④ 구인광고를 보고
- ⑤ 기타(자세히 기재): _____

[문 25] 귀하께서는 직장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다음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

- ① 능력(선천적 재능) ② 인간관계 ③ 개인의 노력
- ④ 학력(교육, 기술 수준) ⑤ 연고관계(지연, 학연 등)
- ⑥ 기타(자세히 기재): _____

[문 26~31] 귀하께서는 다음 사람들의 경조사(결혼식 또는 장례식)에 얼마나 자주 참석하십니까?

	전혀 안함	가끔 참석	자주 참석	항상 참석	모름
문 26 친척	①	②	③	④	⑤
문 27 직장동료	①	②	③	④	⑤
문 28 친구	①	②	③	④	⑤
문 29 이웃	①	②	③	④	⑤
문 30 학교동창	①	②	③	④	⑤
문 31 모임/단체 회원 (어떤 모임/단체? :)	①	②	③	④	⑤

[문 32~문 40] 귀하는 다음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매우 불신	약간 불신	약간 신뢰	아주 신뢰	모름
문 32 가족	①	②	③	④	⑤
문 33 친구	①	②	③	④	⑤
문 34 이웃	①	②	③	④	⑤
문 35 직장동료	①	②	③	④	⑤
문 36 학교동창	①	②	③	④	⑤
문 37 같은 고향사람	①	②	③	④	⑤
문 38 모임/단체 회원 (어떤 모임/단체? :)	①	②	③	④	⑤
문 39 낯선 베트남인	①	②	③	④	⑤
문 40 낯선 외국인	①	②	③	④	⑤

[문 41~문 54]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조직이나 단체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매우 불신	약간 불신	약간 신뢰	아주 신뢰	모름
문 41 교회 및 종교단체	①	②	③	④	⑤
문 42 군대	①	②	③	④	⑤

문 58	대부분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직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59	대부분의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하고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60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61	나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62	대부분의 사람은 믿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63	이 사회에서는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64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이익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65	대부분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66	이 사회에는 위선자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문 67	사람들은 겉으로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문 68	모든 사람에게 악한 면이 있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면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____ 남성 ②____ 여성

Q2. 귀하의 출생년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19____ [뒤에 두 자리만 기입]

Q3. 귀하의 최고학력 수준은?

- ①____ 정규교육 받지못함 ②____ 초등학교 중퇴 이하
- ③____ 초등학교 졸업 ④____ 중학교 중퇴: 기술, 직업학교
- ⑤____ 중학교 졸업: 기술, 직업학교 ⑥____ 고등학교 중퇴
- ⑦____ 고등학교 졸업 ⑧____ 전문대
- ⑨____ 대학교 졸업이상 ⑩____ 모름

※ 다음은 귀하의 가족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4.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①____ 아니오 ②____ 예

Q5. 귀하의 형제자매는 모두 몇 명입니까? _____ 명

Q6. 현재 함께 살고 있는 형제자매는 모두 몇 명입니까? _____ 명

Q7. 귀하는 형제자매 가운데 몇 째입니까? _____ 째

Q8. 귀하는 현재 결혼을 하셨습니까? ①____ 아니오 ②____ 예

Q9. 귀하는 현재 몇 명의 자녀를 두고 계십니까? _____ 명

Q10. 귀하는 직장에 다니고 계십니까? 현재 직업이 무엇입니까?

- | | |
|----------------|----------------|
| ①____ 정직원으로 근무 | ②____ 임시직으로 근무 |
| ③____ 자영업 | ④____ 퇴직 |
| ⑤____ 주부 | ⑥____ 학생 |
| ⑦____ 실업 | ⑧____ 기타 () |

Q11. 귀하의 회사 내 지위는 무엇입니까?

- | | |
|----------------------|----------------------|
| ①____ 경영주(10인 이상 고용) | ②____ 경영주(10 미만 고용) |
| ③____ 전문직 | ④____ 비노무직 감독원 - 사무원 |
| ⑤____ 비노무직 - 사무원 | ⑥____ 현장 주임 및 감독자 |
| ⑦____ 숙련공 | ⑧____ 반숙련공 |
| ⑨____ 비숙련공 | ⑩____ 농장주(자신의 농장 소유) |
| ⑪____ 농업노동자 | ⑫____ 경찰(혹은 군인) |
| ⑬____ 교수(혹은 선생님) | ⑭____ 무직 |

Q12.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____ 상층 | ②____ 중의 상층 |
| ③____ 중의 하층 | ④____ 하의 상층 |
| ⑤____ 하층 | ⑥____ 모름 |

Q13. 귀댁의 평균소득은 다음 중 어느 범주에 속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저소득					고소득				

Q14. 귀하의 한달 평균 수입은 얼마입니까?

- ① ___ 200만동 이하 ② ___ 200~500만동
- ③ ___ 500~1000만동 ④ ___ 1000~2000만동
- ⑤ ___ 2000~5000만동 ⑥ ___ 5000만동~1억동
- ⑦ ___ 1~2억동 ⑧ ___ 2~3억동
- ⑨ ___ 3~5억동 ⑩ ___ 5억동 이상

Q15. 귀하의 고향(청소년기를 보낸 지역)은 어디이십니까?

- ① ___ red river delta ② ___ northeast
- ③ ___ northwest ④ ___ north central
- ⑤ ___ central coast ⑥ ___ central highland
- ⑦ ___ southeast ⑧ ___ mekong river delta
- ⑨ ___ Ha Noi ⑩ ___ Ho Chi Minh city

Q16. 귀하의 아버지의 고향은 어디이십니까?

- ① ___ red river delta ② ___ northeast
- ③ ___ northwest ④ ___ north central
- ⑤ ___ central coast ⑥ ___ central highland
- ⑦ ___ southeast ⑧ ___ mekong river delta
- ⑨ ___ Ha Noi ⑩ ___ Ho Chi Minh city

Q17. 현재 거주지역은 어디이십니까?

군 _____ 시 _____ 현 _____ 성 _____

<답변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Social Capital between Northern and Southern Vietnam

: Challenge to the Putnam's interpretation of Italian Case

WANG Hye Suk, BEAK Yong Hun and LEW Seok-Choon
(Yonsei University)

North and South Vietnam show contrasting features in economic performance. Although the administrative capital is Hanoi in the North, Ho Chi Minh City, the center of the South, is leading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whole nation. What is the reason behind this? What is the cause of the remarkable differences in economic growth between North and South even though both are in the same country which pursued the reform and marketization in the same manner? To answer the questions, existing literatures had solely relied on Putnam's interpretation on Italian case. According to Putnam's proposition, the South that leads rapid economic development will show high level of general trust and weak ties. On the contrary, the North, in the situation of economic under-development, will reveal low level of general trust and family-based strong ties.

To test the Putnam's proposition on social capital,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origins of social capital in Vietnam from the traditional

society as well as articulate its modern features based on a survey conducted in Hanoi, and Ho Chi Minh City. The data in this research show several evidences that counter the Putnam's proposition. The South, in spite of open and weak ties, shows high level of distrust. Meanwhile the North, in spite of strong ties, shows high level of general trust. This can be an evidence challenging to Putnam's gloomy assessment of particular trust restricted to intimate relationships such as families and friends. Rather, particular trust based on intimate relationships can be a source of general trust, and therefore pave the way for 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 That's why we have to pay attention to positive roles of intimate relationships such as *Guanxi* in China, *Yon'go* in Korea, and *Tinh cam* in Vietnam.

Key Words: Vietnam, Hanoi, Ho Chi Minh City, social capital, network, weak ties, strong ties, general trust, particular trust